**예언 사역의 필요성(2) /릭 조이너**

****

† 예언 사역의 필요성(2)

내가 방문했던 거의 모든 회중들에게 있어서

나는 예언의 오용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자들을 적어도 두세 명씩은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때로는 목사님에 의해 상처를 입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회 사역을 교회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언자 사역도 내던져 버릴 수 없습니다.

예언자 사역은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만병 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다른 모든 은사들이 풀려 나오는 것을 돕고

교회가 주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모든 관계의 질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질에 의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책을 한 권 쓰시고는 그 다음에는 은퇴해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그것은 우리와의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예언은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건전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주신 성경을

대체할 의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성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언의 은사를 대체하기 위해

성경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언 사역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들은

거의 항상 예언의 오용 혹은 가짜 예언에 의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 옵니다.

이 지도자들은 대개 예언자들과 예언을 사랑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곧장 이 은사에 의해 야기된 - 혹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야기된 - 문제들의 가장 극단적인 예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언자 사역 혹은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의심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심어 주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책을 읽은 자들은

진정한 예언 사역에 대해서도 완강히 문을 닫아 버리게 됩니다.

(릭 조이너가 지은 “21세기를 위한 예언적 비전” 중에서...)